



슬레이트 그레이와 골드의 화려한 컬러가 돋보이는 0.1 초의 시간: 제니스, DEFY SKYLINE  
CHRONOGRAPH 최초의 부티크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출시하다

2024년 9월 10일, 르로클 - 2024 워치스 & 원더스(Watches & Wonders)에서 공개된 DEFY Skyline Chronograph는 0.1 초 기능을 갖춘 엘 프리메로 크로노그래프 모델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기 좋은 세련된 컬렉션에 풍성함을 더해 줍니다. 이제 제니스가 슬레이트 그레이와 골드 톤이 어우러지는 독특한 컬러 팔레트로 완성된 그 첫 번째 부티크 익스클루시브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DEFY Skyline 컬렉션은 크로노그래프 레퍼런스로 완성됩니다. 지난 50년간 제니스는 디자인 중심의 DEFY 컬렉션에 상징적인 엘 프리메로 칼리버를 탑재해 왔으며, 올해는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DEFY Skyline의 크로노그래프 버전이 마침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대담하면서도 모던한 DEFY Skyline 디자인에 0.1 초 기능을 갖춘 최신 세대 엘 프리메로 오토매틱 고진동 크로노그래프 칼리버를 결합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DEFY Skyline Chronograph 최초의 부티크 에디션은 슬레이트 그레이와 골드 톤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교하면서도 인체공학적인 각면 처리가 돋보이는 건축적이고 기하학적인 오브제로 제작된 DEFY Skyline Chronograph의 직경 42mm 스틸 케이스는 다면 베젤을 갖춘 초기 DEFY의 팔각형 케이스를 모던하게 재해석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또한 앞서 선보였던 모델과 마찬가지로 견고함과 강인한 내구성이라는 동일한 DNA를 바탕으로 더욱 세련되고 현대적인 미학과 비율을 선보입니다. DEFY Skyline Chronograph의 푸셔는 케이스의 날렵한 라인을 따라 배치되어 있고, 스타 엠블럼이 장식된 스크류 다운 크라운은 100m(10ATM) 방수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직 부티크 에디션만을 위해 DEFY Skyline과 DEFY Skyline Skeleton 부티크 에디션의 색조를 반영한 최신 DEFY Skyline Chronograph의 다이얼은 메탈릭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로 이루어졌으며, 시그니처와 같은 별이 빛나는 하늘 패턴 장식과 골드 톤의 4각 별 인그레이빙이 돋보입니다. 이처럼 대비되는 컬러는 시각적인 깊이감과 따뜻한 분위기를 살려 색다른 이미지를 선사하며, 애플리케이션 마커와 핸즈 또한 이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진정한 엘 프리메로의 매력이 묻어나는 DEFY Skyline Chronograph 부티크 에디션에서 3개의 카운터와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과 같은 칼리버의 시그니처 레이아웃은 다이얼과 동일한 슬레이트 그레이 톤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살짝 오버사이즈 크기로 구성되어 서로 중첩되는 3개의 카운터에서는 크로노그래프의 경과된 초와 분,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컨즈 핸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초 단위로 눈금이 표시된 플랜지 링은 12각형 베젤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워 마커의 연장선상에서 12개의 각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워치메이킹 분야에서도 독특한 입지를 지닌 요소이자 DEFY Skyline 컬렉션 전체에 등장하는 디테일은 바로 0.1 초 측정 기능입니다. DEFY Skyline Chronograph의 경우 0.1 초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탑재되어 중앙 핸드가 10초에 1회 회전하며 1초의 1/10 수준까지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이같은 기계적 시계의 위업을 구현해 낸 주인공은 바로 5Hz(시간당 36,000회 진동)의 고진동으로 박동하는 엘 프리메로 3600 칼리버로, 케이스백 디스플레이에서 그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와인딩이 가능한 별 모양의 오픈 로터는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효율적으로 제공합니다.



DEFY Skyline 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일체형 퀵 스트랩 체인지 메커니즘으로 별도의 도구 없이 다양한 스타일을 편리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튼 하나를 누르는 것만으로 3 개의 링크를 갖춘 스틸 브레이슬릿에서 스틸 폴딩 버클이 장착된 별 패턴 장식의 블랙 러버 스트랩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DEFY Skyline Chronograph 부티크 에디션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TRX 에 화려하게 문을 연 새로운 부티크의 오픈 기념식에서 공개되었으며, 전 세계 제니스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제니스: 꿈을 향한 도전.

제니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추구하며 이를 이뤄내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선사하고자 합니다. 1865년 설립 이후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 자리 잡았으며, 제니스 시계는 영국해협 횡단 비행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루이 블레리오(Louis Blériot)부터 성층권 자유낙하 기록을 세운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에 이르기까지 큰 꿈을 꾸며 불가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특별한 인물들과 함께해왔습니다. 제니스는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드림허스(DREAMHERS) 플랫폼을 마련해 선구적인 여성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들에게 주목합니다.

혁신의 별을 따라 전진하는 제니스는 모든 시계에 인하우스 방식으로 자체 개발 및 제작한 무브먼트를 사용합니다. 제니스는 1969년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를 출시했으며, 계속해서 0.1 초까지 측정 가능한 Chronomaster 컬렉션과 0.01 초의 정밀성을 갖춘 DEFY 컬렉션을 통해 정밀한 고진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간 측정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혁신은 곧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니스 HORIZ-ON 이니셔티브는 포용성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직원의 복리후생이라는 세 가지 헌신을 약속합니다. 제니스는 1865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차원을 향한 열정적인 도전과 함께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나만의 꿈을 향해 손을 뻗을 시간입니다.



## DEFY SKYLINE CHRONOGRAPH 42MM

레퍼런스: 03.9500.3600/02.1001

**핵심 사항:** 0.1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실리콘 이스케이프 휠 및 레버. 별들이 수 놓인 하늘 패턴이 장식된 다이얼. 스크류-인 크라운.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교체 가능한 스트랩 시스템.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3600

**진동 수:** 시간당 36,000회 - 5Hz

**파워 리저브:** 약 60시간

**기능:** 중앙에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즈. 0.1초 크로노그래프. 4시 30분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창. 스톱 세컨드 메커니즘.

**마감:** 새틴 마감 처리된 스페셜 로터

**가격:** 12,900 스위스 프랑

**소재:** 스테인리스 스틸

**방수:** 10ATM

**케이스:** 42mm

**다이얼:** 슬레이트 그레이 톤 선레이 패턴

**아워 마커:** 로둠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둠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별들이 수 놓인 하늘 패턴이 장식된 블랙 러버 스트랩 추가 제공. 스테인리스 스틸 폴딩 클래스프

